

성대결절에서 보툴리눔독소 주입술의 효과

프라나이비인후과 음성언어센터

안 철 민

성대결절은 발성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성 음성질환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음성치료가 일차적인 치료로 사용되고,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성대미세수술을 이용한 제거수술이 사용되고 있다. 성대결절의 치료 성적으로 저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60~70%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대결절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함으로 인해 아직도 30~40%의 일부에서 치료가 부족하고, 성대미세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다양한 원인 중 저자는 성대결절이 올 수 있는 원인으로 발성 시 성대의 불완전한 접촉을 생각해 보았다. 대부분의 성대결절은 성대의 불완전한 접촉에 의해 나타나고 음성치료 등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치료를 하지만 발성 형태나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불완전한 성대접촉이 지속되면서 성대결절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저자

는 발성 시 성대의 접촉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인 CT 근육의 긴장을 줄임으로 해서 성대접촉을 유도하기 위하여 CT 근육에 국한된 보툴리눔독소를 주입한 후 성대결절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성대결절로 진단 받은 환자로 CT 근육에 보툴리눔독소 주입술을 시행하고 2~4주 사이에 성대의 확인과 검사가 가능하였던 2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 대상은 음성에 대한 주관적 변화, 성문하압, 평균호기류율, 최대발성지속시간, Jitter, Shimmer, NHR, 후두미세진동검사를 이용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음성의 주관적 변화와 후두미세진동검사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개선된 상태를 보임으로, 보툴리눔독소주입술이 성대결절에서 의미있는 또 한가지의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